

‘청춘★별채’ 새 주인 찾는다

전주 원도심 관광 활성화 시사점 제시

전주시, 9월 1~3일 예비입주자 모집… 보증금 50만원·월세 1만원 주택 공급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의 하반기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2026년 하반기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 공고 를 내고,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예비입주자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완산구와 덕진구 일대 8개 주택 22호로, 기존 매입주택 중 퇴거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마친 물량이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1~3만 원(방 수 기준)이며,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2인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거주형(셰어하우스)’ 5호가 포함됐다.

방 3개 규모의 주택에 2명이 각자 방과 욕실을 사용하고 주방·거실 등은 함께 쓰는 방식으로, 1인당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2만 원이다.

함께 살 청년 2명이 한 조를 이뤄 신청하면 되며, 조를 구성하는 2명은 같은 성별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으로, 자세한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전주시청 누리집 내 ‘통합신청지원’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자산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예비입주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택 개방을 거쳐 순번에 따라 원

하는 주택을 골라 계약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춘★별채’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시는 현재 11개 주택 141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평화동 신축 24호 입주자 모집에는 총 1022명이 몰려 4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영숙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동거주형을 새로 마련했다”면서 “공동거주형은 개인공간과 공유 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을지연습 성공적 마무리

비상 대비 역량 강화 위한 실제 훈련·민방공 대피 훈련 등 실시

전주시가 ‘2026년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키웠다.

시는 지난 21일 오후 시청 지하 2층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종합 강령 보고회를 끝으로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 ‘2026년 전주시 을지연습’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종합 훈련으로, 국가 총력전

에 대비해 전시 대비 계획인 총무계획을 점검하고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시는 18일 최초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청 지하 2층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첫날에는 기관장 주재로 총무계획 발전 소요 도출을 위한 전시현안 과제 토의가 진행됐으며 3일 차에는 전시 상황 대비 도상연습이 진행

됐다.

특히 19일 오후에는 지역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시도시소재 국가중요시설인 농촌진흥청에서 미상의 드론에 의한 폭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도 이뤄졌다.

이어 20일 오후에는 전주시 전역에서 민방공 사이렌 발령과 동시에, 전 국민 대상 대피 훈련 및 교통 통제,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실시됐다.

올해 을지연습은 마지막 날 ‘종합 강령보고회’를 통해 4일간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과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훈련 평가부서의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동물원, 멸종위기종 보전 기반 강화

대구 네이처파크와 협력 통해 미어캣·알락꼬리여우원숭이 무상양여

생태동물원이자 국내 멸종위기종 보전·번식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동물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와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미어캣이 새로운 동지를 틀게 됐다.

전주동물원(원장 박현영)은 21일 대구 네이처파크로부터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네 마리와 미어캣 다섯 마리를 무상양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개체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으로 전주동물원의 종 보전과 개체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전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미어캣 4마리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마리는 번식이 불가능한 개체인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개체들은 번식이 가능한 개체여서 향후 종 보전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무상양여는 단기간에 성사된 것이 아니라, 전주동물원 사육사



들이 국내 동물원들과 지속적으로 사육 기술과 개체관리 정보를 교류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연구원을 활용해 관광마을을 조성

한 일본의 사례처럼 전주시도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료를 원도심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권역 단위 관광사업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일본의 역사자원 활용 관광마을만들기 사례를 분석하고, 전주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사업화와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역사자원 활용 관광마을만들기’의 사업추진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번 이슈브리프는 개별 건축물 보존을 넘어, 주변 거리와 상권, 숙박, 식음, 체험, 문화활동 등을 연계하는 ‘권역 단위 관광지 경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동향과 사업추진 구조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바

탕으로 전주시도 한옥마을과 인근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 상권, 유휴공간을 단순히 연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성 검토, 운영주체 발굴, 자원조달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권역 단위 관광사업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민간 운영주체, 공공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는 자원 조달 구조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발굴, 자산 소유자 협의, 운영주체 연계, 금융기관 협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관광·문화 분야의 재정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관광사업의 기획·조정·운영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역사자원 활용을 위한 인허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형 가상 로케이션 플랫폼 ‘K-로케이션’ 개발 성과 공유

‘엔리얼 페스트 서울’서 소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지난해 전주대학교의 RISE사업 초광역 연구개발 과제인 가상 로케이션 플랫폼 ‘K-로케이션(K-Location)’의 개발 성과가 국내외 3D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엔리얼 페스트 서울 2026’을 통해 소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광역 협력을 바탕으로 영화·영상산업의 디지털 제작 환경을 고도화하고, 로케이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흥원과 전주대학교를 비롯해 광주대학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의대학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참여했으며, 플랫폼 개발은 ㈜웨스트월드와 아크프레임㈜이 수행했다.

‘엔리얼 페스트 서울 2026’은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K-로케이션 개발 성과는 21일 오후 1시 40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트랙 공식 세션을 통해 소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공동개발사 아크프레임㈜의 박성제 대표는 ‘엔리얼 엔진 픽셀 스트리밍, 어디까지 가봤니?: 가상 로케이션 SaaS를 만들며 만난 벽과 가능성’을 주제로 K-로케이션의 개발 과정과 주요 기술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엔리얼 엔진 픽셀 스트리밍 적용 △브라우저 기반 서비



지난해 전주대학교의 RISE사업 초광역 연구개발 과제인 가상 로케이션 플랫폼 ‘K-로케이션(K-Location)’의 개발 성과가 국내외 3D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엔리얼 페스트 서울 2026’을 통해 소개됐다.

스 구현 △서비스 중단 이후 세션 복원 △3DGS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등 가상 로케이션 플랫폼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공유됐다.

이와 관련 ‘K-로케이션’은 실제 전주 촬영지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영화·영상 제작자가 현장을 방문하기 전 온라인에서 촬영지를 탐색하고, 촬영 장면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 모델로 개발된 플랫폼이다.

플랫폼에는 3DGS(3D Gaussian Splatting) 기술이 적용됐으며, 엔리얼 엔진 기반 실시간 3차원 환경과 픽셀 스트리밍 기술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공간에서 촬영지를 살펴보고 △영화화 카메라·렌즈 선택 △인물과 카메라 배치 △카메라위크

설정 △플러닛 및 장면 사전 검토 등 사전각화(Pre-visualization)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진흥원은 이번 엔리얼 페스트 세션 발표가 플랫폼의 개발 성과를 실시간 3D 기술과 영화·영상 제작 분야 전문가들에게 알리고, 향후 기술협력과 제작 현장 활용, 전주 로케이션 유치 확대를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PoC 모델의 개발 성과와 전문가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플랫폼 고도화와 전주 지역 촬영지의 3차원 데이터 확대,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와 인공지능(AI) 기반 시각효과(VFX) 후반제작 지원 시설 등 전주의 영화·영상 제작 기반시설과 연계해 플랫폼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관공각

내아